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개막 성황

첫 주말 30만명 몰려 억새장관 만끽



포천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첫 주말인 13, 14일 은빛물결이 출렁이는 20만㎡의 억새밭을 보기위해 산정호수 명성산을 찾은 300만명의 등산객들은 푸른 산정호수를 배경으로 명성산 기슭을 따라 왕복 8km의 산길을 오르내리며 억새밭의 장관을 만끽했다.

포천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첫 주말인 13, 14일 은빛물결이 출렁이는 20만㎡의 억새밭을 보기위해 산정호수 명성산을 찾은 30만명의 등산객들은 푸른 산정호수를 배경으로 명성산 기슭을 따라 왕복 8km의 산길을 오르내리며 억새밭의 장관을 만끽했다.

13일 포천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이승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산정호수위에 억새로 만든 배를 띄우고 관광객들의 소망을 담아

불에 태우는 '억새밭탈집태우기'를 선보였으며 박운국 포천시장과 고조흥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의 억새등 점등식을 가져 16일간의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가을철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축제로 올해 11회째를 맞은 억새꽃 축제는 예년과 달리 산정호수 광장에서만 했던 축제 주무대를 명성산 정상 부근에도 소규모 공연과 전시회를 마련해 산정호수 관광지 및 명성산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개막식 간소화 및 연예인들 초청공연을 없애고 경기소리보존회 민요공연을 비롯해 청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리코더앙상블, 포천기타동아리의 기타공연, 트롯트 선동공연 등 실력있는 지역 주민들의 무료공연으로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편, 명성산 억새밭에서 펼쳐진 '억새밭 작은음악회'에서는 색소폰과 트럼펫공연을 펼쳐 등산으로 지

친 등산객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자연과 음악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또한 등산객이 작성한 엽서를 접수한 후 내년 억새꽃 축제현장에서 수신자에게 전하는 '억새밭 빨간우체통'은 등산객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등산객들은 하나같이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입을 모으고 아들, 연인, 부모님 등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이밖에 포천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래무시와 일본 후쿠토시 대표단이 방문, 국제문화화요리장터에 참가해 전통요리를 선보이고 예술단의 전통춤과 전통악기를 공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공예, 내만의 우표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포천시 농축특산물 판매장운영, 외국 민속공예품 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축제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좋은 부분은 더 부각시켜 관광객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구등기소 건물 새롭게 단장

공무원 설계부터 시공까지 3억 예산절감



포천시내 풍물로 방치되었던 구 등기소 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청소년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로 단장한다.

수 년동안 포천시내 풍물로 방치되었던 포천시청 앞 구 등기소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청소년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로 새롭게 단장했다.

구 등기소 리모델링 공사는 포천시 시 노력으로 법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후 포천시는 청소년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포천시가 직접하

기로 하고 올 6월에 착공해 10월 완공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포천시 건축과 이태승 건축시설담당이 건축물 디자인을 하는 등 설계에서부터 자재 구입과 일용 인부투입 등을 맡아 직접 시공함으로써 약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4개월여 동안 건축과 공무원들은 토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공

사에 매달려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존건축물 철거에서부터 노후건물 보수보강 및 건물 리모델링까지 모두 끝마쳤다.

공사현수막을 설치하고 가설물타리에 시민홍보판넬 및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살수차등을 동원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심지공사라는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포천시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화장실, 더 나아가 응벽 및 방호벽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건축문화(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연결하여 구 등기소를 현대적인 시설 및 디자인을 적용하여 포천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만들고 외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포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거둬으로써 건축문화향상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2007 포천 개성인삼축제 '성황'

전국 각지 21만여명의 관람객 찾아

포천시에서 열린 '2007 개성인삼축제'가 12일부터 1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2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포천시와 개성인삼협회가 주최하고 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포천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져 14일까지 2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8시간 군악대 퍼레이드로 시작된 개막식은 난타공연을 비롯해 사물놀이, 포천한국예총의 한국무용 등 다양한 볼거리와 연예인 축하공연으로 흥겨운 축제마당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화려한 불꽃놀이로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개막식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개성인삼은 세계 최상급으로써 지난해 6년근 수삼부분 국내최초 품질인증 및 ISO 9001을 획득했으며 포루투칼 등 7개 국가



포천시에서 열린 '2007 개성인삼축제'가 12일부터 1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2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에 수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FTA 협정체결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개성인삼의 효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특화된 품목으로 더욱 발전시킨다면 개방화로 인

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객들은 이 자리에서 질 높은 인삼과 약재를 시중보다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으며, 6년근 인삼경매, 인삼카테일, 인삼유유 시음회 및 6년근 인삼구별법 등 인삼을 소재로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개성인삼홍보와 판매의 절호의 기회가 됐다.

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인삼 인절미 떡매치기, 개성인삼 아가씨·아줌마 선발대회, 개성인삼 즉석 노래방, OX퀴즈 및 민속놀이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개성인삼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개성인삼을 직접 손으로 캐고 이를 가공품으로 생산해보는 체험은 가족단위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인수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장 은 포천·연천 등 북위 38°선 상하 9개 시·군에서 재배되는 6년근 인삼은 조직이 치밀하고 향이 두드러지는 우수성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축제를 통해 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체의학 측면에서의 효능을 정립하는 한편, 인삼산업 부가가치창출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포천을 개성인삼의 원산지로 널리 알림으로써 인삼농업발전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관광진흥 대상 수상

관광휴양도시 개발진흥 정책 부문

포천시는 10월10일 서울 프래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한국관광연구원 주최하는 2007 하반기 대한민국의 관광진흥 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포천시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시설을 도입, 체험형 관광지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롯데관광과 MOU를 체결해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온천장 등 복합관광 휴양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경기북부 최고의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있으며, 수려한 경관 속에 방치돼 원상복구가 어려운 폐체석장을 예술성 높은 국제적인 관광·휴양명소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포천 아트밸리' 조각공원도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다.

또한 한국민속예술축제를 비롯해 포천 국제조각



포천시는 한국관광연구원 주최한 2007 하반기 대한민국 관광문화 진흥정책에서 관광휴양도시 개발진흥 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포지엄, 남부현대 미술제, 포천아시아 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개최로 문화예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이에 걸맞은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문화예술 행사개최도 인정 받았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천혜의 관광지인 포천시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포천시 제4차 쌀사랑교실 운영

벼도정과정 및 사과따기 체험 실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휴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쌀사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봄부터 손으로 모내기한 벼를 10월 14일 네 번째 교실에서 가족들이 낫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품바인 수확현장도 보며, 포천쌀 연구회 가공센터를 방문하여

벼가 쌀로 도정되는 과정을 견학하고 파수원을 찾아 사과따기도 체험했다.

또 참가자들은 포천의 대표적 축제인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개성인삼축제등을 견학하며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체험교육을 통해 참가자가 쉽게 농업에 대해 다가서고, 국내 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휴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쌀사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간과 자연의 상생원리 정착에 앞장

제29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개최



포천시는 11일 반월아트홀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이강림 포천시회의회장, 장해광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회장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가졌다.

포천시는 11일 반월아트홀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이강림 포천시회의회장, 장해광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회장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가졌다.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9주년을 맞이하여 자연보호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일반인·단체·군인 등을 포상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했다.

기념식에 앞서 김교선 발달수질본부 수질관리과장을 초빙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속에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시간여 동안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자연보호운동에

헌신해온 유공자 30여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박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 문제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 해 온 읍·면·동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21세기는 지구환경과파괴를 초래한 개발우선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환경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상생의 원리가 지구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환경을 무시한 개발이나 소비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생명의 원천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는 평소 이러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역개발을 열망하여 『세계로 열린 포천시 건설』이라는 시정의 방침을 세우고 친 환경적인 지역개발을 도모기 위하여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환경관리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2007포천 국제장터 운영

국제자매도시 7개국 전통음식 시연

포천시는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제4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국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포천 국제장터를 운영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맞춰 1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산정호수 조각공원 인근에 국제장터를 마련해 운영했으며 19일 시민의 날에는 포천종합운동장 내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운영했다.

포천시의 국제 자매·우호도시인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총 7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 나라별 전통요리 시연 및 시식마당을 운영하여 다양한 요리를 맛보고 중국의 맛탕, 러시아의 필만(러시아식 물만두), 인도의 양고기커리 등 즉석에서 요리 시연을 선보였다.

또 특산물, 전통 기념품 전시 및 판매와 외국인의 전통의상(혼례복) 체험과 즉석사진 찍어주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히 중국, 일본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예술단이 펼치는 전통춤과 전통악기 시연을 선보이고 시민들이 전통놀이와 전통악기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도 마련되어 색다른 문화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국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증진과 관련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제장터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13일부터 28일까지 "가을, 휴식 그리고 낭만"이라는 주제로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개최해 억새꽃의 절경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등산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19일에는 시 승격 4주년을 맞아 제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11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 22명을 위촉하고 자원봉사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천시는 11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위원장 황영철) 위원 22명을 위촉하고 자원봉사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식 및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포천시의 연차별 심의·의결하여 주민의 자원

자원봉사 발전위원 위촉

연차별 시행계획안 설명 시책마련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 홍보활성화 방안, 자원봉사 행사 지원 확대, 청소년·성인 자원봉사 활동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지원 등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이 좀더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에서 자원봉사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위원들간 자원봉사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

고 당부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여성회관 요리반 김정미 강사

조리(한식) 기능장 취득

포천시 여성회관의 요리반 김정미 강사는 지난 9월 14일에 열린 제42회 조리(한식)기능장 시험에 통과하여 여성회관의 요리반 운영에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

조 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장 자격은 조리능력은 물론 서비스정신과 관리능력까지 갖춘 관리자급 전문조리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자격의 수준도 상당하고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 정평이 나 있다. 김정미 강사의 기능장 취득으로 향후 포천시 여성대회의 요리 관련 취창업 강좌들이 한층 수준 있게 변모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김정미 강사는 지난 2월 포천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 간 외식 서비스 선택속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를 취득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